

계곤지 절(스즈무시데라 절)

계곤지 절에서는 수천 마리의 방울벌레(일본어로 스즈무시)를 유리 상자에서 사육하고 있어 별명인 ‘스즈무시데라 절(방울벌레 절)’로도 불리고 있습니다. 가을 밤에 방울벌레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는 제 8 대 주지 다이간은 20 세기 중반 무렵에 방울벌레의 울음소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방울벌레 사육을 시작하여, 연중 벌레가 울 수 있도록 최적의 온도, 습도, 영양 등을 연구하는 데 28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.

역사

계곤지 절은 일본에서 화엄종이 다시 부흥하기를 목적으로 삼은 승려 호탄(1654~1738 년)에 의해 1723 년에 건립되었습니다. 화엄종 사원으로서 역할을 맡고 있었으나 후계자가 없어, 나중에 임제종으로 개종했습니다. 본존은 화엄종 가르침의 특징인 우주 그 자체를 나타내는 부처님이라는 대일여래입니다.

방울벌레 설법

사원의 가쿠덴(客殿, 손님을 맞는 전각)에서는 방울벌레 소리와 더불어 승려들이 30 분간 ‘방울벌레 설법’이라는 설법을 행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은 다양하지만 보통 사원의 역사와 선(禪)의 개념, 그리고 불교의 예화를 이야기합니다. 설법은 기본적으로 꼭 참가해야 하지만, 일본어를 알지 못하는 분은 경내나 정원 견학만 할 수도 있습니다. 산문 누각에는 행복지장보살상이 있는데,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장보살상처럼 맨발이 아니라 짚신을 신고 있습니다. 기도를 드릴 때 자신의 주소를 이야기하면 이 지장보살상이 참배자의 집에 직접 가서 바람을 들어주고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합니다.